

플라스틱 용기 대금조사 내달 결론… ‘숨방망이 처벌’ 우려

중기부, 대·중견기업 7곳 현장조사
불공정·탈법 여부 놓고 내부 검토
탈법행위해도 과태료 부과 수준 낮아

상생협약 9곳, 납품가 200억 인상
협력사 394곳 등에 인상분 반영
150억 조기 지급해 유동성 지원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쓰는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결과가 오는 8월에 나온다.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탈법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과태료가 ‘연동양정 미체결’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탈법행위’는 횡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000만원 이하(3회)여서 숨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 수요기업(위탁기업) 9개사는 협력 중소기업(수탁기업) 394개사에게 약 200억원의 납품대금을 올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

중소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점검 결과

4월 9일 협약체결 이후, 수요기업(9개사)은 협력사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 조기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

✓ **납품대금 조정**
9개 수요기업, 협력사 **394개 대상 총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인상

✓ **유동성 지원 등**
3개사 **조기지급 총 149.7억원** (10월 이내)
3개사 **납기연장·패널티 면제 54건** (납기연장 7.9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업 7개사에 대한 직권 현장조사를 끝내고 ‘상생협력법’에 따른 처벌 수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과는 빠르면 내달 중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에 대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납품대금을 수탁기업에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7개 기업을 추려 5월 중순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면조사 결과 15개사는 지난 1년간 146개 용기 제조 중소기업과 약 3200억원 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를 통해 이들 15곳 가운데 법 위반 의심 기업 2곳, 서류 제출 불성실한 기업 2곳, 거래 중인 수탁기업 이다수인 기업 3곳 등 총 7곳으로 현장조사 대상기업을 압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끝내고 현재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상생협력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과 달리 과징금 처분은 없고 가장 큰 것이 과태료 부과로, 조사가 끝난 만큼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불공정·탈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플라스틱 관련 수요기업 9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이날 내놨다.

9개 수요기업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삼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가 이름을 올렸다. 이후 별도로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 조사 대상에는 이들 9개사 외에 6개사가 더 추가됐다.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올려줬다.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중동 전쟁 발발로 원유 수급길이 막히며 원가가 50~60% 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으로 된 컵, 용기 등을 제조해 납품하고도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던 차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이다.

아울러 수요기업은 149억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10일 이내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또 54건의 납기연장과 패널티 면제를 통해 납품 부담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기업 2곳은 협력사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들이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자발적인 상생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공영홈쇼핑

AI모델 2인 새롭게 첫선

공영희·영언니 홍보 전면

공영홈쇼핑이 인공지능(AI) 모델 ‘공영희’와 ‘영언니’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들 AI 모델은 브랜드 필름, 프로모션 등 홍보 콘텐츠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40대의 이른바 ‘K-장녀’ 공영희는 신뢰와 공감을 상징하는 모델로, 공영홈쇼핑의 공공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30대 ‘K-손녀’ 영언니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프로모션 모델로 나설 예정이다. 향후 두 모델은 공영홈쇼핑의 대표 얼굴로서 숏폼 콘텐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홍보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AI 모델 도입으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 모델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해 판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공영홈쇼핑이 지난 4월 AI 모델을 앞세워 선보인 패션 전문 프로그램 ‘패션 팔로미’는 7일 기준 약 18억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AI 고사양 회로박 앞세워 수익성 개선 속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 생산능력 내년 1만6000톤 확대
회로박 성장으로 전지박 부진 보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고사양 회로박의 공급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실적 개선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유일 회로박 생산업체라는 강점에 판매량 증가와 생산능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지박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983억원, 영업손실은 171억원으로 예상된다. 적자는 이어지지만 회로박과 전지박 출하가 모두 늘면서 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2분기 전체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약 20% 증가할 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공장 전경.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망”이라며 “회로박과 전지박 출하량은 각각 25%, 20% 늘어나겠지만 전지박 평균 판매가격(ASP)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수익성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은 회로박 생산 확대와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지박

출하 증가에 달릴 전망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북 익산공장의 전지박 설비 일부를 회로박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용 제품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익산공장의 연간 회로박 생산능력은 기존 3700톤에서 올해 6700톤으로 늘어

난 뒤 내년 상반기에는 1만6000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고객사의 추가 공급 요청에 맞춰 극박 투자를 포함한 하이엔드 회로박 생산능력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로박은 인쇄회로기판(PCB)의 회로를 형성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소재다. AI 가속기와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의 데이터 전송량이 늘면서 고속 신호의 전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초고속도(Hi VLP) 회로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고사양 회로박은 표면 거칠기를 낮춰 고속 신호의 전송 손실을 줄여야 하는 만큼 높은 생산 기술이 요구된다.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용 기반 증설 속도를 동반 공급 확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회로박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홍동석 대한전선 기술연구소장 상무(왼쪽부터), 김현주 대한전선 생산·기술부문장 전무, 권승희 명지대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장, 한종욱 명지대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 본부장이 해저케이블 구조 성능검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성능검증

부유식 해상풍력 강화

대한전선이 명지대학교와 해저케이블 구조 성능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케이블의 국내 개발·인증 기반을 강화한다. 대한전선은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에서 해저케이블 구조 성능검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전력·통신 케이블과 산업 제품의 구조 성능 시험 및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련 기술 연구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지대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는 대형 실험 장비와 첨단 계측 시스템을 갖추고 구조물과 산업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실제 사용 환경을 모사하는 하이브리드 실험 기술을 활용해 산업 구조물과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해저에서 장기간 운용되는 만큼 파도와 조류, 장력 등 실제 설치·운영 환경을 반영한 구조검증과 제품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원관희 기자

한솔테크닉스, 멕시코서 북미 전장 공략

전자변속장치·LED 등 현지 생산
베트남·태국 거점 기능별 전문화

한솔그룹의 전기·전자부품 전문기업 한솔테크닉스가 멕시코법인을 신설하고 북미 전장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한솔테크닉스는 기존 아시아 중심의 해외 생산체계를 북미까지 확대하고 생산거점별 전문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멕시코법인 신설을 통한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이다. 북미는 연간 약 1600만대 규모의 차량이 판매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전장 부품의 현지 조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솔테크닉스는 멕시코를 북미 생산거점으로 구축해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자동차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멕시코법인인 전자변속장치, 내·외장 LED, 무선충전모듈 등 자동차 전장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북미 주요 고객사와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물류 효율과 공급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시아 생산거점도 기능별 전문화를 추진한다. TV용 파워보드는 베트남 호치민 법인으로 생산을 일원화하고, 태국 법인은 가전부품 전문 생산거점으로 운영하는 등 생산거점별 역할을 재정립해 운영 효율성과 제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쿨 썸머’ 프로모션 돌입

뷰티레스트 블랙 등 할인 혜택
쿨링 패드·올시즌 세트도 할인

‘뷰티레스트 블랙’ 등 제품 알뜰 구매 시몬스가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수면을 위한 ‘COOL SUMMER(쿨 썸머)’ 프로모션을 펼친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에선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물론 업계 메가히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 ‘특급호텔 침대’이자 ‘국민 혼수침대’, ‘프리미엄 침대의 대명사’로 유명한 시몬스 제품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매트리스 2조와 프레임 등을 함께

구매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마련해 ‘독립수면’을 준비하는 부부나 자녀 침대를 고려 중인 학부모, 온 가족 침대를 일괄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뿐만 아니라 여름 시즌 필수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매트리스 쿨링 패드’와 ‘올시즌 쿨링 세트’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몬스 침대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선사하는 ‘시몬스 Refresh & Rewards’ 프로모션도 중복 적용 가능해 고객 만족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몬스 침대는 프로모션 기간 구매 금액대와 품목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모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김승호 기자